WEEKLY IBK 경제브리프
(526호) 2017-11-28
IBK경제연구소

초대형 IB 출범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

□ 자기자본 4조원 이상 5개 증권사*가 초대형 IB로 지정되면서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음

* 자기자본 현황('17.6월말 기준) : 미래에셋대우(7.1조원), NH투자증권(4.7조원), 한국투자증권(4.3조원), 삼성증권(4.2조원), KB증권(4.2조원)

○ 기업금융을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발행어음이 허용되었고, 기업 대상 단순 환전업무까지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

- 초대형 IB 핵심인 발행어음 업무는 한국투자증권만 인가받았고, 1개사는 적격성 문제로 심사보류, 나머지 3개사는 심사 진행 중

< 초대형 IB 자기자본별 인센티브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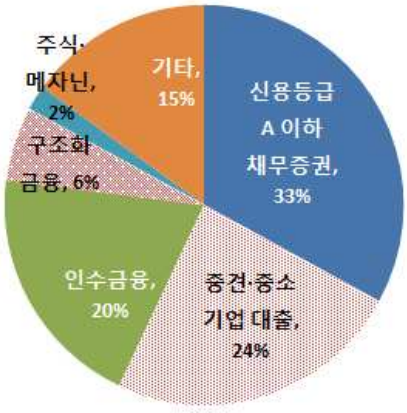
자기자본 3조원 이상(기존)	자기자본 4조원 이상(신규)	자기자본 8조원 이상(신규)
▪ 기업 신용공여 – 자기자본 100% 한도 ▪ 프라임브로커 업무 – 헤지펀드 대출·중개·결제	▪ 발행어음 – 자기자본 200% 한도 – 기업금융자산 50% 이상 – 레버리지 규제 제외 ▪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 – 기업고객 현물환 매매	▪ 종합투자계좌(IMA) – 고객에게 운용실적 배당 – 발행한도 제한 없음 – 기업금융자산 70% 이상 – 레버리지 규제 제외 ▪ 부동산담보 신탁

□ 초대형 IB의 1년 만기 발행어음 금리는 2.3% 수준으로 발표되었으며, 발행어음으로 조달된 자금의 50% 이상을 기업금융시장에 공급해야함

○ 5개 증권사의 기업금융 운용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중위험(신용등급 A 이하) 채권에 33%, 중견·중소기업 대출에 24%를 투자할 계획

○ 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금리 경쟁력이 높아 기존 저축은행 예금 및 RP 고객을 상당 수준 대체 할 것으로 예상

초대형 IB의 기업금융 투자계획



발행어음 vs. 은행 정기예금

	발행어음	은행 정기예금
금리	1.2%~2.3%	0.1%~1.9%
만기	수시~1년	수시~1년
예금자보호	X	O (5천만원 한도)
시장규모	35조원 ('19년까지 합계)	617조원 ('17년 9월말잔)

자료 : 한국은행, 각 사 사업계획서, 주 : 금리는 11월 24일 예금은행 기준

□ 초대형 IB 역할에 대해 업권간 입장차가 큰 가운데 신용공여한도의 확대 및 부동산담보신탁 업무 허용 등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음

○ 증권업계는 모험자본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공여한도 확대를 주장하나, 은행업계는 건전성 관리 및 과당경쟁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을 우려

※ 국회 정무위에서 초대형 IB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200%로 확대하고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보류상태

쟁점사항	증권업계	은행업계	진행상황
신용공여 한도 확대	• 모험자본 공급 및 활성화	• 건전성 관리능력 미흡 • 현재도 한도 충분	법안 보류
발행어음 업무	• 기업금융 재원 확보 •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	•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음 • 만기 미스매치, 유동성리스크	허용
종합투자 계좌	• 상시적 자금조달 수단 마련	• 은행 수신계좌와 유사 (전업주의 원칙 훼손)	허용
외국환업무	• 서비스 다양성 제고	• 은행업무 영역, 과당경쟁	허용
부동산 담보신탁	• 종합적인 기업금융서비스 제공	• 과당경쟁	미정

□ 단기적으로는 초대형 IB의 출범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, 중장기적으로 은행과 경쟁구도를 형성할 가능성 높음

○ 현재 초대형 IB가 기업금융시장에 공급 가능한 자금규모는 예금은행의 6%(20조원, 자기자본의 100%) 수준이나, 신용공여한도 확대 및 추가 업무 허용이 진행된다면, 결과적으로 은행과의 경쟁이 불가피

(작성자 : 산업연구팀 과장 박선후 tempest0810@ibk.co.kr / ☎02-729-6522)